

소크라테스, 올스타전 승리의 '산파술'

나눔 올스타 8-4 승리 이끌어 1회 3점 홈런 ... '우수타자상' 채은성 만루홈런 '미스터 올스타'

16년 만에 사직구장에서 열린 KBO 올스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에서 나눔 올스타(KIA·한화·LG·키움·NC)가 한화 채은성의 만루포를 앞세워 드림 올스타(KT·두산·삼성·SSG·롯데)를 8-4로 제압했다.

나눔 올스타는 지난해에도 연장 승부치기 끝에 나온 정은원(한화)의 결승 홈런으로 6-3 승리를 거뒀다.

1회말 선제 결승 적시타를 기록한 채은성은 4-1로 앞선 4회말에는 롯데 구승민(롯데)을 상대로 그랜드슬램을 장식하면서 '미스터 올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올스타전 만루포는 역대 두 번째로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김용희 이후 41년 만의 기록이다.

채은성은 전날 진행된 올스타 홈런레이스에서는 7아웃에 5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올스타 홈런왕'에 등극했다. 이와 함께 채은성은 사상 최초로 올스타 홈런왕과 MVP까지 동시에 석권한 선수가 됐다.

3점포를 기록한 KIA 소크라테스는 우수타자상을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1회말 1사 1·2루에서 박세웅을 상대로 우측 담장 넘기는 3점포를 작렬했다. '우수타자'가 된 소크라테스는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소크라테스는 '트럼펫 퍼포먼스'로도 눈길을 끌었다.

소크라테스는 1회 첫 타석에서 앞서 중절모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트럼펫을 들고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그리고 팀 동료 이우성, 최지민과 함께 자신의 응원가에 맞춰 트럼펫을 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 소크라테스의 중독성 강한 응원가가 사직구장에 울려 퍼졌고, 소크라테스가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듯 3점포를 날리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우수 투수상은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KT 박영현에게 돌아갔다. 올해 신설된 우수 수비상은 롯데 안지홍의 차지가 됐다. 롯데 신인 외야수 김민석은 첫 타석에 앞서 케이팝 댄스를 선보이면서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에서 나눔팀 소크라테스가 트럼펫을 불며 타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 '베스트 퍼포먼스상' 주인공이 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2만2990명이 입장해 역대 22번째 올스타전 매진이 기록됐다.

또 2007년 이후 처음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맞춰 롯데 출신의 '미스터 올스타' 김용희(1982·1984년), 허규욱(1989년), 김민호(1990년), 김응국(1991년), 전준우(2013년)가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경기 시작을 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올스타전' 드림올스타 대 나눔올스타의 경기. 1회말 1사 1·2루 상황에서 나눔 소크라테스가 스리런을 날린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재 프로 첫 골...광주FC, 아쉬운 무승부

대구와 홈 경기 1-1



광주FC가 대구FC와 벌인 빛속의 혈투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기다렸던 프로 첫 골을 장식한 주영재는 "더 잘해야 했다"며 아쉬움을 삼켰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K리그1 2023 23라운드 홈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앞서 강원과 제주로 이어지는 초장거리 원정에서 각각 1-1, 0-0을 기록했던 광주의 세 경기 연속 무승부.

금호고 출신의 주영재가 프로 첫 골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승리의 만세 삼창까지는 외치지 못했다.

전반 15분 '금호고 듀오' 허율과 주영재에게 시선이 쏠렸다. 광주 진영에서 아론이 전방으로 길게 공을 보냈고, 허율이 공을 잡아 질주를 시작했다. 이어 허율이 왼쪽에 있던 주영재에게 공을 넘기고 중앙으로 침투했다.

두 명의 수비진이 주영재를 향해 달려오던 상황, 주영재는 패스 대신 슈팅을 선택했다. 중거리 슈팅은 그대로 대구 골대 왼쪽 모서리를 뚫으면서 선제골이 됐다. 프로 7경기 만에 기록된 주영재의 데뷔골이기도 했다.

2021년 엄지성, 신승훈과 함께 금호고 3인방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그는 목포FC 임대 선수로 활약한 뒤 올 시즌 팀으로 복귀했다.

지난 4월 1일 수원FC와의 홈경기를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주영재는 7번째 대구전에서 시원한 슈팅으로 골을 장식했다. 이 골로 금호고 1년 선배인 허율은 시즌 첫 도움을 올렸다.

하지만 주영재는 경기가 끝난 뒤 "더 잘해야 했다. 첫 골을 넣고 좋았는데 이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광주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22분 광주의 실점을 기록했다.



광주FC의 주영재(오른쪽)가 지난 15일 대구FC와의 K리그1 2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5분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구 황재원이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골키퍼 김경민이 쳐냈지만, 공이 티모 맞고 상대 이근호 앞으로 향했다. 빈 골대 앞에 있던 이근호가 발리 슈팅으로 광주 골대를 가르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 '라인업 막내'의 첫 골이 나왔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이정호 감독에게도 아쉬움이 됐다.

이정호 감독은 "주영재가 데뷔골을 넣었는데 형들이 승리로 답을 해줬으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인데 아쉽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감독은 강원-제주 강행군에도 패배 없이 최선을 다한 승부를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다.

이정호 감독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원정 두 경기 다녀오고, 홈에서 엄청 힘들었던 경기였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비가 많이 오는데 팬분들도 많이 오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날씨에도 2851명이 입장해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시원한 골로 팬들을 열광시킨 주영재는 "패스 받고 다시 율이 형 주려고 했는데 뻗길 것 같아서 그냥 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골대도 안 보고 때렸는데 운 좋게 골이 들어갔다"며 "골을 넣고 나서 아무 생각 안 들고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뛰어갔던 것 같다"고 첫 골 소감을 밝혔다.

주영재는 골을 넣은 뒤 벤치로 달려가 이정호 감독과 기쁨의 포옹을 했다.

주영재는 이어 "골 넣고 자신감 살릴 수 있게 더 잘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만 앞으로 전에 했던 경기 보다 더 성장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공격적으로 하면서 수비수를 더 힘들게 하겠다. (도움을 기록한) 율이 형에게 맛있는 것을 사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월드컵 한국 첫 상대 콜롬비아 평가전 '파행'

"너무 격렬해서" 20분만에 중단

한국 여자 대표팀의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첫 번째 상대 콜롬비아가 너무 거친 경기를 한 나머지 상대 팀이 평가전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5일 호주 브리즈번 미킨파크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콜롬비아와 아일랜드 간 비공개 평가전은 경기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그대도 종료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너무 격렬해서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경기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미드필더인 데니즈 오설리번이 경기 중 거친 태클을 당해 정강이 부위 통증을 호소한 끝에 병원에 이송됐다. 아일랜드축구협회는 추후 오설리번이 골절을 피했다고 밝혔다.

베라 포우 감독은 스카이스포츠에 "47년간 축구인 생활 중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했다.

포우 감독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경기였다. 활기찼고, 좋은 경기였는데 점점 신체적으로 격렬해지는 분위기가 됐다"며 "오설리번에게 경기 규정 상 허용될 수 없는 경합 시도가 다했고, 고통을 호

소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콜롬비아 감독에게 가서 '협조가 필요하다. 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우리가 태클, 경합을 두려워하는 팀이 아니지만 선수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계속된다면 선수들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 측 요청으로 경기가 중단됐다. 우리 대표팀은 규정과 건전한 경쟁-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켰다"면서 "상대 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콜롬비아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해 훈련 중인 우리나라 대표팀의 조별리그 H조 첫 번째 상대다. 콜롬비아의 평균 신장은 166.8cm로 한국(167.9cm)보다 조금 작지만, 이번 평가전 파행 사태를 보면 격렬한 신체 접촉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콜롬비아와 2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맞붙고, 30일 모로코, 내달 3일 독일과 차례로 대결한다.

콜롬비아의 FIFA 순위는 25위다. 한국은 17위고, 독일·모로코는 2위, 72위다. /연합뉴스

하루짜리 계약하고 바로 은퇴...MLS 포틀랜드 '레전드 예우'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포틀랜드 팀버스가 팀의 레전드인 디에고 발레리(37)를 위해 '1일 계약'을 맺고 화려한 은퇴식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포틀랜드는 15일(한국시간) 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발레리와 1일 계약을 했다. 포틀랜드 팀버스의 일원으로 은퇴하게 된다"라고 알렸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발레리는 2003년 라누스(아르헨티나)에서 프로

에 데뷔했고, 포르투(포르투갈)와 알메리아(스페인) 등에서 임대로 뛰다가 2013년 8월 포틀랜드로 이적했다.

2013년 1월부터 임대 신분으로 포틀랜드에서 활약한 발레리는 2021년까지 9시즌 동안 공식전 309경기를 뛰며 100골(정규리그 86골 포함)을 터트렸다.

발레리는 포틀랜드 역대 정규리그 최다 득점(86골)과 최다 도움(91개)을 작성하며 팀의 레전드로 남았다. /연합뉴스